

인터넷 시대의 언론 영역과 언론중재

박 기 성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 문제의 제기

“언론”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부담없이 사용할 만큼 듣고 말하는 너무나 자연스런 일상적인 어휘로 정착되었다. 우리의 오랜 언어 사용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言論이라는 한자 어휘가 사용되어 왔고 개화기 이후 언론은 서양 사상에 힘입어 개화 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 새로운 인식이 성립된 것이다. 개화기에 간행된 신문, 학술잡지, 신소설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언론은 평론 내지 체계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서양의 speech에 상응하는 번역어로 “언론”을 채택한 것이다. 언론은 언어 표현 행위인 언설, 평론, 담론, 논설, 언지 등 다양한 어휘가 있지만 언론으로 선택한 것은 언어적 표현 행위 중에도 가장 차원 높은 수준의 어휘 때문으로 추정된다.

언론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 하에서부터 신문 잡지를 언론으로, 제작하는 기관을 언론사 또는 언론기관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언론인으로 부르면서 우리 사회에도 익숙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보다 앞서 개화운동을 한 일제가 서양의 신문 사상과 제도를 정착해가는 과정에 言論이라는 말을 사용해온 경향을 보면 공중이 언어 문자로 의사 표현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신문지를 통하여 논평하고 의사를 밝히는 행위를 언론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의 개화기의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언론은 신문지 보다는 여기에 의사 표현하는 행위를 지칭한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점차 언론이 이러한 언어 문자 표현 중심의 언론에서 신문, 잡지 등을 언론이라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방송은 해방이후까지도 언론으로 지칭되지 않았지만 60년대 이후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대중보급이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 실용화하면서 점차 언론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어휘의 활용은 점차 언어 문자의 표현 중심에서 이를 담는 그릇인 매체 중심으로 사용의 초점이 확대된다. 공식적인 법제도로 대중매체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계기는 3공화국의 언론윤리위원회법, 5공화국의 언론 통폐합 이후 제정한 언론기본법에서 공식화 한다. 이제는 차라리 신문, 방송, 또는 대중매체라는 말 대신에 언론이라는 말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사회적 인식의 전

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소치로 해석될 수 있다.

디지털 매체가 대중화 되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매체가 가상공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언론과 인식의 상충이 일어난다. 기존 신문과 방송이 인터넷으로 연장되어 언론의 영역이 확장되면서도 가상공간에서의 신문 방송 또는 언론이 될 수 있는가에 이견이 제기된다. 디지털 기술에 기초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형성된 표현의 공간이 사이버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언론”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혼돈이 야기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신문은 언론이 될 수 없다는 논쟁이 가열되면서 언론의 영역 문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인터넷 언론의 실험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반론 제기와 함께 이제는 인터넷 언론, 또는 사이버 언론으로 공인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왜 언론이 되어야 하는지 타당성의 제시에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이제 “인터넷 언론”이라는 말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만 어떠한 차원에서 언론으로 규정할 것이며 앞으로 언론 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 신문이나 방송이 인터넷으로 연장되어 실시간 정보를 전달하고 인터넷 망이 부가가치 통신의 자격으로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대화방, 토론방, 공공기관의 홍보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양식으로 실험 시대를 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언론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규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공중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중의 보호 활동의 한 영역인 언론 중재의 피해 구제 영역 역시 이러한 영역 설정에 따라 확대 조정 할 뿐 아니라 제도 장치도 개선되어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다.

언론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언론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언론 영역이 달라진다면 언론 중재 역시 달라지기 마련이다. 언론 중재의 성격과 방법 역시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안에 착안하여 (1) 언론의 영역은 어떠한 상태로 계보화 되어 왔으며, (2) 인터넷 언론을 어떠한 근거에서 규정할 것이며, (3) 이러한 언론 영역 확장 시대에 대비하여 언론 중재 활동은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생태구성의 관점

본 발제는 흔히 기존 접근이 시도해온 구조기능적 또는 역사적 접근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태구성적 관점을 적용한다. 전자가 가지는 한계는 보편성을 강조한 나머지